

서재응 코치 “부상 변수로 마운드 플랜 B 가동”

KIA 함평 스프링캠프를 가다

‘플랜B’로 KIA 타이거즈의 2022시즌 마운드 준비가 이뤄지고 있다.

KIA는 22일 이번 스프링캠프 첫 연습경기를 치른다. 애초 23일 경기가 예정됐지만 날씨 상황을 고려해 하루 앞당겨 실전에 돌입한다.

실전으로의 전환을 앞두고 서재응 투수 코치는 “전반적으로 생각했던 것보다 페이스가 많이 올라온 상태. 양현종도 캠프 기간에 이 정도로 빨리 페이스를 올린 적이 없다. 페이스가 많이 올라왔고 알아서 몸을 잘 만들어왔기 때문에 기대를 많이 하고 있다”며 “두 외국인 선수는 22일 라이브가 잡혀 있다. 처음 라이브를 하는데 시즌에 포커스를 맞춰서 1주일 정도 늦었다. 몸 잘 만들어와서 팀에 잘 적응하고, 원하는 스케줄 대로 잘 소화하고 있다”고 캠프 중간 평가를 했다.

순조롭게 빠른 페이스로 시즌 준비가 이뤄지고 있지만, 부상이라는 변수는 피하지 못했다.

선발진 두 축인 임기영과 이의리가 각각 옆구리 근육 미세 손상, 손가락 물집으로 캠프에서 빠진 상황이다.

서 코치는 “가장 아쉬운 게 임기영과 이의리가 빠져있는 것이다. 이의리는 캐치볼 들어가게 되면 바로 합류할 수 있는 상황이지만 임기영 자리가 문제이기 때문에 플랜 B를 쓰고 있다. 생각했던 것보다는 플랜 B를 일찍 썼다”고 이야기했다.

플랜B에서 선발 경쟁을 하는 후보는 지난 시즌 선발로 가능성을 보여준 윤중현과 이민우 그리고 ‘에비역’ 유승철과 한승혁이다.

서 코치는 “4명의 선수를 우선순위로 놓고 있다. 경쟁전 시작하면 게임 모드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

오늘 스프링캠프 첫 연습경기

임기영·이의리 부상으로 빠져

윤중현·이민우·유승철·한승혁

선발경쟁의 관건은 ‘제구력’

불펜의 큰 틀은 ‘장현식-정해영’

6~7회 해결 열쇠 전상현 주목

선수들이 서로 경쟁해서 두 자리 다 차지하면 팀 상황으로도 고마울 것이다”고 언급했다.

4-5선발 경쟁에서 우선 보는 부분은 ‘제구력’이다.

서 코치는 “팀 컬러도 생각하겠지만 안정적인 제구가 가장 필요하다. 4-5선발이 없는 상태라서 이 선수들이 어느 정도 제구를 가지고 이닝을 끌어야 불펜의 과부하 등 기본적인 부분이 커버가 된다”며 “스트라이크를 많이 던질 줄 알아야 한다. 스피드도 중요하겠지만 가장 중요한 부분은 어느 정도 로케이션을 가지고 가느냐가 될 것이다”고 말했다.

불펜의 큰 틀은 ‘장현식-정해영’으로 지난해와 같다. 6-7회 고민을 풀어줄 자원으로는 전상현을 주목하고 있다.

서 코치는 “아직 전체적인 구상은 하지 않고 감독님과 계속 이야기하는 상황이지만 마무리는 정해영이 갈 것 같다. 8회도 똑같이 장현식으로 가는데, 6, 7회 이 두 이닝을 어떻게, 어떤 선수에게 맡겨서 끌고 가느냐가 가장 큰 문제다”며 “전상현이 건강하게 캠프 잘 소화하고 있고, 지난해에도 무리 없이 시즌을



KIA 서재응 코치(오른쪽)가 21일 함평 챌린저스필드에서 양현종의 불펜피칭이 끝난 뒤 주먹 하이파이브를 하고 있다.

마무리했기 때문에 비중을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깜짝 자원’으로는 우완 장재혁과 이준형을 꼽았다.

서 코치는 “지난해 2군에 있었을 때 좋은 모습을 보였던 장재혁, 이준형을 감독님께 말씀드려서 캠프에 참가시켰다. 생각했던 것만큼 좋은 모습을 보여

주고 있다. 장재혁은 포심 패스트볼이 자연 커터로 변화구로 삼진 잡을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워닝샷을 던질 수 있는 볼을 가지고 있고, 아직 어려서 스피드도 더 올라갈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말했다.

또 “이준형은 나이가 있는 선수인데 기본적으로 빠른 볼을 가지고 있고 내야 땅볼을 만들어낼 수 있

는 구질이 있다”며 “순간 순간 팀이 필요할 때 유형에 맞춰 활용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두 선수 모두 (육성 선수를 의미하는)0번대 번호를 달고 있다. 앞으로 기회를 받아서 0번 번호를 뗄지는 본인들에게 달려있다”고 기대감을 보였다.

/글·사진=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확실히 넓어진 스트라이크존

한승택 타자 “높은볼에 후한 느낌...나만의 존으로 승부”

서재응 코치 “공 2개 정도 높아져...자신의 존 넓혀가야”

시즌 KBO리그에는 스트라이크존 확대라는 중요한 변화가 있다.

공을 던지는 투수 입장에서 공을 때려내야 하는 타자들 입장에서 민감한 변화다. 새로운 존 적용에 앞서 심판진들은 각 구단 캠프를 돌며 스트라이크존에 대한 설명회를 가졌다.

선수들은 설명회 시간에 다양한 질문을 쏟아내면서 관심을 보였지만 “직접 겪어봐야 알 것 같다”고 입을 모았다. 그리고 21일 직접 달랠진 스트라이크존을 경험할 수 있는 시간이 마련됐다.

이날 KIA 양현종과 이준영이 불펜 피칭에 나섰고, 문승훈 심판위원 등 심판진이 포수 뒤에서 콜을 외쳤다. 엇갈린 콜이 나오면 심판진과 선수들은 트래킹 장비를 통해 코스 등을 확인하면서 새로운 존 익히기에 나섰다.

직접 이준영의 공을 잡고, 양현종의 피칭 때 타석에서 공을 지켜본 포수 한승택은 “높은 존은 확실히 후하게 주는 느낌이다. 오른손 투수, 왼손 투수 각도가 다른데 그 부분에서도 다른 느낌이 있었다. 확실히 넓어졌다는 느낌이 들었다”며 “투수가 공에 힘이 있는 선수라면 높은 존을 활용하면 수비 쪽에서는 장점이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물론 장타 위험도 있기는 하다.

한승택은 “투수에 따라서 다를 것 같다. 장타를 맞을 수 있겠지만 스피드 있게 던지는 힘 있는 투수라면 높은 패스트볼을 활용할 경우 파울이나 플라이볼 확률이 더 많다고 생각한다. 투수가 그날 공에 힘이 없다고 하면 낮게 요구를 하겠지만, 힘 있을 경우에는 높은 존을 잘 활용하면 좋은 결과가 나올 것 같다”고 이야기했다.

KIA의 배터리도 높은 존을 활용한 승부를 펼칠 전망이다. 한승택은 “전상현, 장현식, 정해영 등 우리 중간 선수들이 직구에 힘 있는 투수들이라 활용을 많이 할 것 같다. 우리 팀 뿐만 아니라 다른 팀도 활용을 많이 할 것 같다”고 밝혔다.

타자 입장에서 생각하면 불리한 변화지만 한승택은 “자기만의 존”으로 승부하겠다는 계산이다.

한승택은 “높은 볼을 버리고 자기자 잘 칠 수 있는 공을 놓치지 않겠다고 하는 타자도 있고, 그 볼을 잘 쳐야 한다는 선수도 있다. 높은 볼이 약한 타자도 있을 건데 그런 선수들에게는 손해가 있을 것 같다”며 “나는 다 잘 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웃음을 보였다.

직접 달랠진 존을 확인했지만, 서재응 투수 코치는 “하던대로” 피칭을 주문할 생각이다. 서 코치는 “국제대회 올림픽처럼 그런 존으로 형성되어가는



KBO심판진이 지켜보는 가운데 21일 함평챌린저스필드에서 양현종의 불펜 피칭이 진행되고 있다. 한승택(오른쪽)은 타석에서 달랠진 존을 확인하고 있다.

것을 느꼈다. 포수하고 상관없이 심판진이 구간을 확실히 정했다”며 “기준에 불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3-4개 정도는 차이가 날 것 같다. 높은 공 2개 정도 높아졌다. 쉽게 말하면 지난해 타자들이 약간 몸쪽 높은 볼 들어왔을 때 윽쩍하면 불이었는데 윽하는 스트라이크 판정이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생정하게 우리 국내 투수들 1-3선발 빼고 제구력 있게 던지는 게 힘들다. 본인의 피칭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던지다 보면 ‘이쪽 존이 스트라이크가 들어가는구나’ 투수가 느꼈을 때 확실하게 가는 게 낫다. ‘이쪽 공방이 스트라이크니까 거기를 보고 연습을 하자’ 그런 아니

라고 생각한다. 투수들이 가진 밸런스와 본인이 추구하는 스트라이크 존이 있다. 존이 확대됐다고 거기에 맞춰 피칭을 하면 개인한테 부담감이 있을 것이다”며 실정을 통해 투수들 스스로 자신의 존을 넓혀가도록 할 방침을 밝혔다.

/글·사진=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광주FC 찾은 반가운 손님 펠리페

‘괴물 스트라이커’ 펠리페가 반가운 손님으로 광주FC를 찾았다.

청두 룽청에서 뛰고 있는 펠리페가 지난 19일 광주의 K리그2 2022 개막전이 열린 광주축구전용구장을 찾았다. 중국리그 도전을 위해 광주를 떠난 지 8개월여만의 방문이다.

펠리페는 광주의 ‘레전드’ 외국인 선수다.

2018시즌 후반기 광주에 합류한 펠리페는 지난 시즌 중반까지 79경기에 나와 41골 7도움을 올렸다. 광주의 K리그2 우승과 승격 그리고 창단 첫 FA컵 우승까지 펠리페가 이끌었다.

2019시즌에는 19골을 터트리면서 K리그2 득점왕은 물론 광주 소속 최다 득점 기록도 작성했다.

펠리페는 하프타임 때 인터뷰를 갖고 팬들에게 인사를 했다. 팬들도 ‘제2의 고향’을 찾은 펠리페를 따뜻한 박수로 반겼다.

펠리페는 “중국으로 급하게 떠나면서 한국에서 마무리하지 못한 이들이 있다. 휴가차 한국을 찾았는데 광주는 제 2의 고향 같은 곳이다. 선수들과



지난 19일 광주축구전용구장을 찾은 펠리페가 포즈를 취하고 있다. <광주FC 제공>

팬들이 그리워서 광주를 왔고, 남은 휴가도 광주에서 보낼 생각이다”며 “열심히 동계훈련 준비한 선수들이 꼭 우승이라는 목표를 이룰 수 있도록 응원할 것이다. 많은 응원을 보내준 팬들에게 감사 인사도 하고 싶다”고 밝혔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빙상 베이징 스타들 3월 세계선수권 준비

쇼트트랙, 3월 18~20일 캐나다 몬트리올 대회 출전

피겨스케이팅, 21~27일 프랑스 몽펠리에 대회 참가.

스피드스케이팅은 12~13일 네덜란드 월드컵 파이널 출전

베이징 밤하늘을 수놓았던 많은 별이 쉽지도 않으면서 이어간다.

2022 베이징 동계올림픽을 무사히 마친 한국빙상(피겨·스피드스케이팅·쇼트트랙) 대표팀 선수들은 제103회 전국동계체전(25-28일)을 거쳐 3월에 열리는 종목별 세계선수권대회 등을 준비한다.

금메달 2개, 은메달 3개를 획득한 쇼트트랙 대표팀은 다음 달 18일부터 20일까지 캐나다 몬트리올에서 열리는 2022 국제빙상경기연맹(ISU) 쇼트트랙 세계선수권대회에 출전한다.

세계선수권대회는 올림픽 다음으로 큰 국제대

회로 한 시즌을 마무리하는 무대다.

베이징 올림픽에 출전했던 ‘빙상 태극전사들’은 자기격리 면제 대상이라 전국체전부터 출전해 컨디션 끌어올리기에 집중할 예정이다.

전국체전 쇼트트랙 종목은 25-27일까지 춘천의 양빙상장에서, 스피드스케이팅은 25-26일까지 태릉국제스케이팅장에서, 피겨스케이팅은 25-27일까지 의정부실내빙상장에서 치러진다.

올해 세계선수권대회는 지난해 선발전 결과에 따라 심석희, 최민정, 김지유(이상 개인전), 김아람(고양시청), 이우빈(연세대·이상 계주) 등 5명이 가지고 있다.

은메달 2개, 동메달 2개를 획득한 스피드스케이팅 대표팀 선수들도 귀국 후 소속팀에 복귀해 동계체전에 출전할 예정이다.

이후 일부 선수들은 다음 달 12~13일 네덜란드 헤이렌라임에서 열리는 국제빙상경기연맹(ISU) 월드컵 파이널에 출전해 올림픽의 기세를 이어간다.

다음 달 3일부터 6일까지 노르웨이 하마르에서 열리는 세계선수권대회에는 올림픽에 출전하지 않은 선수들이 참가할 예정이다.

베이징 올림픽에서 큰 감동을 안겼던 피겨스케이팅 국가대표 선수들은 다음 달 21일부터 27일까지 프랑스 몽펠리에에서 열리는 세계선수권대회에 출전한다.

이미 귀국한 남자 싱글 차준환, 이시형(이상 고려대), 여자 싱글 김예림, 유영(이상 수리고)은 다시 훈련을 시작했다.

한국 피겨는 세계선수권대회에서도 남녀 싱글에서 나란히 톱10 진입에 도전한다. /연합뉴스